

## 다큐멘터리는 감수성 혁명 中

지상파 다큐스페셜 훑어보기

봉지욱

### 1. 반갑다, 친구야

작년 여름이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삼순이를 모르면 간첩’이란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7월 무렵이다. 확실한 간첩이었던 나는 한꺼번에 섭렵한 후 왕따를 피하리라 마음먹었다. 몇 편을 연속으로 보다 피로한 눈을 좀 쉬우려고 마우스를 만지는데 일이 벌어졌다. 우연히 클릭해서 들어간 곳. 그곳은 어느 다큐멘터리스트의 블로그였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나올 수도 있었으나 필연이었던 것일까. 함초롬하게 내걸린 게시판의 글들이 손목을 붙들었다.

‘다큐멘터리’라는 단어조차도 생경하던 때였으나, 제작 에피소드들을 읽다보니 시나브로 작품이 궁금해졌다. 그때 본 다큐가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였다. 제목 정도는 어디서 들은 듯한데,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잘 몰랐다. 정말 놀라웠다. 보도연맹, 제주 4.3 등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우리 역사가 거기에 있었다. 어느 나라님 덕에 유명해진 말이지만, 그것은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다. 이후 무식한 나는 똑똑한 다큐와 친구가 되어 한 수 배우기로 다짐했다.

새로운 친구 덕에 소소한 고민도 생겼다. MBC <내 이름은 김삼순>은 저녁 10시에 방영되는 수·목 드라마였다. 매주 수요일 같은 시간에 KBS에서 <환경스페셜>을 한다. 주말 저녁 8시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그때나 지금이나 김삼순 같은 강적이 브라운관을 장악할 때면 다큐냐 드라마냐, 배움이나 간첩이냐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한다. 아주 가끔은 친구를 모른 채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린 친구라 믿는다.

“왜냐고? 친구 아이가!”

우리의 만남도 어느새 1년이 다 되어 간다. 그래서 1주년을 기념 삼아 내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한다. 일단 최근 이 녀석의 눈에 띄는 변신부터 말해야겠다. 무뚝뚝한 입에서 쉴 새 없이 수다가 쏟아지는가 하면, 사막같이 건조한 눈에서 우박 같은 눈물이 떨어지기도 한다. 예쁜 남자가 대세라는 걸 알아차린 걸까? 남성미를 과시하며 외모에 전혀 신경 쓰지 않던 친구가 갑자기 멋을 부리기 시작했다. 증상을 종합하니 병명(病名)은 하나다. 내 친구는 지금 질풍노도의 시기, 즉 사춘기를 겪고 있다.

## 2. 사춘기의 감수성으로 — ‘다큐야? 드라마야?’

동생에게 전화가 왔다. “형, 돈 좀 있어? 급해!” “갑자기 왜?” 이유인 즉, 총학생회장이 당선 공약이었던 최신형 PDA 염가 공급을 실천에 옮겼는데 그게 선착순이란단. 못내 당황스러웠다. 예부터 총학생회장이라 하면 강인한 운동권의 이미지가 아니던가! 아차, 돌이켜보니 대학에서 최루탄 냄새가 없어진 것이 오래다. 비단 대학뿐일까.

바야흐로 참여 민주주의의 시대다. 좌우로 나뉘어 뚜렷한 이유도 없이 서로를 미워하던 때는 갔다. 국가나 이념보다 개인의 삶과 생각이 더욱

중요시되는 포스트-모던(Post-Modern)한 세상이다. 여기에 디지털 혁명이 더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 모든 분야에서 다양성이 미덕으로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일까? 다큐멘터리에도 일약 변화의 ‘광풍(狂風)’이 불고 있다. ‘다큐’하면 으레 지루하고 딱딱한 이미지가 떠오른다. 그래서 다큐는 매번 비인기 종목으로 분류되는 모양이다. 시청자가 보지 않는 방송프로그램에 존재 의미가 있을까? 방송의 공영성을 내세워도 왠지 뜨악하다. 스스로 존재의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리라. 요즘 지상파 다큐는 확실히 예전과는 다르다. 시청자를 맞이하는 문턱을 낮추려는 다양한 실험이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나는 이것을 다큐멘터리의 ‘감수성혁명(感受性革命)’이라고 부르고 싶다.

혁명은 크게 두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먼저 소재(素材)의 확장이다. 군홧발이 민초를 짓밟던 기간이 길었던 탓인지, 그간의 다큐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감춰진 진실을 드러내는 데 거의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하지만 이내 소재 발굴의 한계에 봉착한다. 비슷비슷한 내용을 다루는 다큐가 쏟아지면서 ‘진실’보다 ‘식상함’이 먼저 다가온다. 상투성과 엄숙주의에 간혀 재미도 진실도 잃어버린 다큐를 시청자가 선택할 리 없다. 이제 시청자는 자신의 삶에 직접 맞닿으면서도 드라마 김삼순만큼 맛깔스러운 다큐를 원한다. 그것이 트렌드다. 만남, 이별, 죽음, 고독 같은 개인적인 것들이나 사랑, 웃음, 공포, 마음 같은 추상적인 것들 때로는 소리, 빛, 맛, 냄새 같은 감각적인 것들이 드라마를 넘어 다큐의 소재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 소재의 확장이 이뤄진 대표 작품

### KBS스페셜

방영일자	제목	소재	생활밀착형
05.05.07	새 놀이터 프로젝트 <아이들을 유혹하라>	아이들 놀이터	0
05.05.21	<마흔 남자 이야기>	중년 남성의 삶	0
05.09.18	HD영상포엠 <간이역>	사라져 가는 간이역	X
05.10.16	<한국야구 백년, 사상최대의 프로젝트 백년드림팀 평가전>	야구 100주년 기념	X
06.01.15	특집 다큐 <마음> 6부작	인간의 마음	0
06.03.18	옴니버스 테마 다큐 <나무이야기>	나무와 삶	X

### MBC스페셜

방영일자	제목	소재	생활밀착형
05.05.26	보도 다큐 <사별>	죽음과 가족	0
05.09.15	추석특집 다큐 <하늘의 선물> 2부작	눈과 비 그리고 서민생활	0
05.09.18	감성다큐 <리브레터>	추억의 편지	0
05.10.23	HD뮤직다큐 <하루>	서민들의 하루살이	0
06.02.26	<행복한 부부, 이혼하는 부부> 2부작	부부 관계	0
06.03.23	<모차르트> 2부작	모차르트 250주년 기념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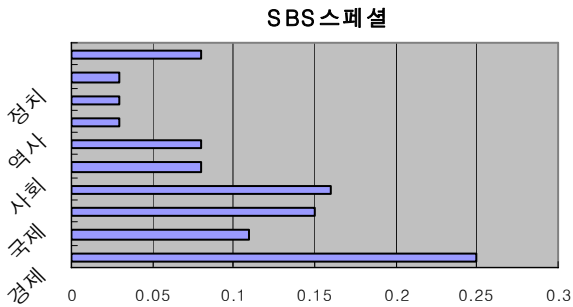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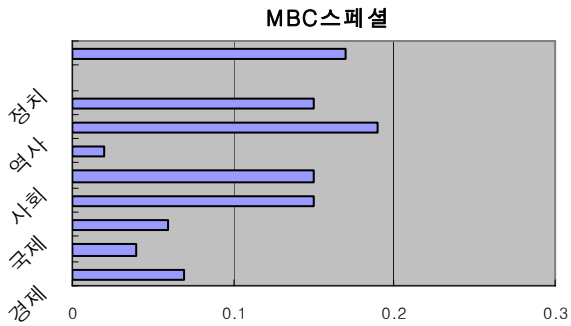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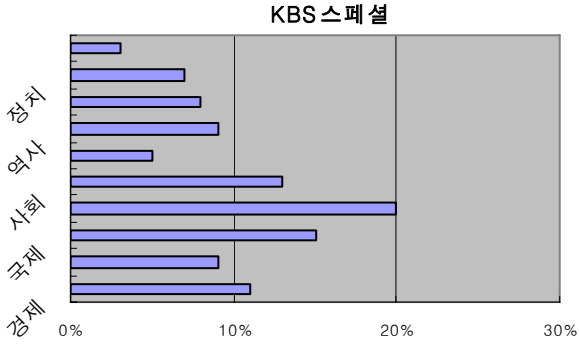
### SBS스페셜

방영일자	제목	소재	생활밀착형
05.10.16	<유언-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	0
06.01.18	<웃음에 관한 특별보고서>	웃음과 성공의 관계	0
06.02.12	대한민국 영양 보고서-〈혼자 밥 먹는 사람들〉	도시인의 식생활	0

### EBS스페셜

방영일자	제목	소재	생활밀착형
05.08.04	<감성시대-공포의 비밀>	공포의 과학적 탐구	X
05.12.16	<일상의 미스터리-소리>	소리에 대한 고찰	0
06.02.24	<부부이야기>	부부 관계	0

지상파 다큐스페셜 소재 분류



조사 기간 2005.05~2006.04

도표를 보면 방송사마다 선호하는 소재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KBS는 다큐 왕국답게 비교적 다양한 소재를 고루 다루며 특히 국제, 문화와 관련된 아이템을 많이 다뤘다. SBS는 경제와 관련된 소재가 많았고, MBC는 역사 관련 소재에 방점을 찍었다(EBS스페셜은 작품 수가 적어 도표에서 제외).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은, 분야를 막론하고 ‘생활밀착형’ 소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대 담론이 아닌 일상적 삶과 직결되는 질박한 소재, 연예나 스포츠 같은 가벼운 소재가 늘어나는 추세다. 또 세계화 시대답게 국제적인 이슈가 다큐의 소재로 많이 다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표현(表現)의 확장이다. 소재 선택에만 몰입하다 보면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소홀히 할 수 있다. 다큐에 진실이 담겼다면 그것의 전달력은 표현의 효율성에 달렸다. 가족, 역사 같은 뻔한 소재나 사랑, 마음 같은 추상적인 소재를 다룰 땐 표현 방법이 더더욱 중요하다. 내레이션은 과감히 배제하고 인터뷰만으로 구성하거나(MBC <가족>), 가수가 참여해 내레이션도 하고 노래도 부르는가 하면(KBS <김윤아의 제주도>), 잊지도 않은 사실을 제목으로 내세워 시청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페이크(fake) 형식을 차용하고(KBS <한국야구 백년, 사상최대의 프로젝트>), 마음의 메커니즘을 보여주기 위해 과학적인 실험을 벌이고 마임이스트(mimeist)를 활용하는(KBS <마음> 6부작) 등 도처에서 다채로운 형식적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 표현의 확장이 이뤄진 대표 작품

### KBS스페셜

방영일자	제목	표현상 특징
05.04.03	<김윤아의 제주도>	유명 여가수의 내레이션, 상징적 이미지 활용
05.09.18	HD영상포럼 <간이역>	유려한 화면 구성, 민요의 활용
05.10.16	<한국야구 백년, 사상최대의 프로젝트>	한국 최초의 페이크(fake) 다큐



	백년드림팀 평가전	
06.01.15	특집 다큐 <마음> 6부작	과학적 실험, 3D 등 볼거리 풍성
06.03.04	<전쟁을 생산한다-민간군사기업> 2부작	상징적 이미지 활용
06.05.14	5·18 기획 팩션 드라마 <오월의 두 초상>	드라마 형식 다큐

### MBC스페셜

방영일자	제목	표현상 특징
04.01.20	인터뷰 다큐멘터리 <가족>	내레이션 없이 인터뷰만으로 구성
05.02.06	설날특집다큐 <출가>	주제, 배경 음악을 자체적으로 작곡
05.10.23	HD뮤직다큐 <하루>	뮤직다큐, 다양한 카메라 구도 활용
06.03.23	<모차르트> 2부작	뮤직다큐, 상징적 이미지 활용

### SBS스페셜

방영일자	제목	표현상 특징
05.09.11	<나는 가요-도쿄 제2학교의 여름>	철저한 사실주의적 접근

### EBS스페셜

방영일자	제목	표현상 특징
05.08.04	<감성시대-공포의 비밀>	과학적 실험, 3D 등 볼거리 풍성

얼마 전, 웰빙을 테마로 한 다큐 KBS <생로병사의 비밀>이 해외 방송사에 팔렸다고 한다. 시대의 트렌드를 잘 포착한 다큐는 해외에서도 통한다는 증거다. MBC <행복한 부부, 이혼하는 부부>는 뜨거운 성원 속에 재방송 되면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KBS <마음>은 시청자들의 열렬한 요구 속에 책으로도 출간되었다. 이렇듯 ‘감수성혁명’은 다큐와 시청자가 가까워지는 소통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혁명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드라마와 다큐, 픽션과 논픽션이 만나는 경계 어디쯤에서 정해질 거란 것밖에는.

### 3.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하여 — ‘초심(初心)’을 잊지 말자, 친구야

EBS국제다큐멘터리페스티벌(EIDF)에서의 일이었다. 작품 시사 후 감독과 대화할 시간이 있었다. 인상 깊은 작품 중 하나인 <부탄의 오지학교>를 연출한 도지 왕축 감독이 연단에 올랐다. “돌아오는 길에 주인공이 하는 행동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데, 혹시 감독이 시킨 것 아닙니까?” 나름 도발적인 질문에 대연히 답을 한다. “사실 주인공이 갑자기 그런 행동을 하는 바람에 카메라에 못 담았습니다. 이야기 흐름에 중요할 것 같아서 한 번 더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듣고 보니 그럴 듯하다. 의미심장한 장면인데 놓쳐서야 되겠는가!

이런 고민은 KBS 전우성 PD에게도 있었다. 그는 ‘그림 만들기’ 선수다. 상징적인 이미지를 창조해 내레이션을 보강하거나 때로는 깔끔하게 대체해버린다. 그의 작품 KBS스페셜 <추성훈 혹은 아키야마>에서의 일이다. 제일교포 이종격투기 선수인 추성훈의 어머니는 아들의 경기 때마다 빨간 끈을 가지고 다닌다. 아들이 K-1데뷔전을 승리로 이끈 날 글러브에 감았던 의미 있는 끈이기 때문이다. 작품 후반, 추 선수의 경기가 시작됐다. 그런데 경기장에 응원 온 어머니는 좀처럼 그 끈을 가방에서 꺼내지 않는다. 고군분투하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절박한 심정은 내레이션 없이 그 끈 하나로 오롯이 설명될 수 있었다. 즉, 좋은 그림이었던 것이다. “어머님, 끈 곧 꺼내실 거죠” 하지만 마지막까지도 끈은 나오지 않았다. 전 PD는 당시의 집착을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라며 반성했다<sup>2)</sup>.

다큐멘터리 전반에 감수성 바람이 불면서 소재와 표현, 두 측면에서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웃음, 사랑, 마음 등의 감성적인 이미지가 소재로 채택되는가 하면 시사, 역사, 휴먼 등의 전통적 단골 소재가 과격적인 방법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에 없던 문제점들이 나왔다.

---

2) 전우성 PD의 《PD연합회보》 기고문 중 발췌.



시청률을 의식한 가벼운 소재 선택, 억지스러운 이미지 만들기, 부자연스러운 삽화 삽입, 클로즈업 남발, 과도한 컷 분할 등이 다큐를 다큐스럽지 않게 만들고 있다.

특히 소재 면에서 감성다큐의 터줏대감이라 할 수 있는 ‘휴먼다큐’가 가장 문제다. 일단 휴먼다큐가 너무 많다. 디지털 시대, 감성 시대 운운하면서도 과학이나 예술을 다룬 다큐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과학은 EBS <E=MC<sup>2</sup>을 아십니까?> 같은 계기물이 전부고, 예술은 KBS <도자기>, MBC <모차르트> 같은 기획물이 드물게 나오는 정도다. 비교적 제작이 쉽고 돈이 덜 들면서도 시청률이 잘 나오는 휴먼다큐에만 치중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요즘의 휴먼다큐는 왜 그리 친절한 걸까? 도무지 시청자가 끼어들 틈이 없다. 오랜 인기작인 KBS <인간극장>도 내레이션 밀도가 상당하다. ‘기쁘고 슬프고 웃기는’ 지는 시청자가 판단할 일이다. 하나의 다큐를 보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감정을 느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주인공의 속마음까지 예단해버리는 전지전능한 내레이션. 말로써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할 때, 시청자는 감상의 자유를 뺏겨버린다. 또 전달력을 극대화한답시고 남발되는 클로즈업은 시청자로 하여금 객관적인 판단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연출자가 의도한 대로 느끼게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최근 MBC <내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희아>의 선전에서 보듯 우리 휴먼다큐는 외국에서도 인정받는 수준이다. 비법은 주인공의 디테일한 삶을 자연스럽게 포착하는 데에 있다. BBC나 NHK 등의 세계 일류 방송사도 못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 생각은 이렇다. 전통적으로 한국인은 손님을 집에 머물게 하는 데에 인색하지 않다. 연출진이 주인공의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데 친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주인공은 자신의 삶에 끊임없이 개입하는 카메라와 친구가 되어 간다. 대개 시청률이 잘 나오는 휴먼다큐는 이런 수준에 오른 작품이다. 카메라를 향해

스스럼없이 이야기하는 주인공을 보는 시청자는 마치 자신을 향해 이야기를 하는 듯한 혹은 주인공 옆에서 직접 듣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그만큼 주인공과의 거리가 좁혀지는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긴장의 거리가 없어진 연출자와 주인공은 때론 모종의 합의를 하기도 한다. 연출자는 극적인 요소를 살리기 위해 주인공에게 특정 장면을 재연해줄 것을 요구하거나, 특정 행동을 지속해줄 것을 요구한다. 이 경우 대개 주인공은 좀 더 잘 나오고 싶은 마음, 아니면 연출자와의 친밀감 때문에 협력하게 된다. 다크가 진실을 잃어버리고 한 편의 픽션 드라마로 전락하는 순간이다. 꾸며지고 조작된 것은 다크가 아니다.

다큐멘터리란 기본적으로 ‘사실을 기록하는 장르’이다. 그러나 완벽하게 사실적인 다크란 불가능하다. 현실을 카메라에 담는 순간, 그것은 이미 현실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도 연출자는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참을 수 있는 무거움’으로 승화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다크에 진실다운 진실이 생긴다. 기본과 상식을 지킬 때 비로소 ‘감수성혁명’도 의미를 갖는다.

#### 4. 그날이 오면

“내 친구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 그녀의 친구가 면접관처럼 던진 질문이다. 머리를 긁적여보지만 선뜻 대답이 떠오르지 않는다. 어느새 발개진 얼굴. 순간의 번뇌는 스스로에 대한 의심으로까지 이어진다. ‘외모? 성격? 나한테 잘해줘서? 그런데 내가 애를 좋아하긴 하는 걸까.’ 하지만 늘 그렇듯 머릿속과 현실은 지독한 엇박자다. 연출된 미소를 머금은 가운데 살포시 날리는 식상한 멘트.

“하늘만큼 땅만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좋아요.”

그때도 비슷한 느낌이었다. 누군가 내게 다크가 왜 좋냐고 물었다.

사람에 대한 질문이 아닌데도 마땅히 할 말이 없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 그동안 나는 정말이지 받기만 했다. 친구와 놀면서 울고 웃고 감동 먹고 덤으로 삶의 지혜와 생활의 정보까지 얻었다. 주고받는 미덕 속에 우정이 두터워지는 법인데 난 아무것도 주지 못했다.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먼저, 친구의 무엇이 좋고 싫은지 훑아보고 싶었다. 애정과 관심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1주년을 지축하며 친구에게 곰살맞은(?) 잔소리를 늘어놓은 데는 그런 이유가 있다.

시춘기의 풍부한 감수성으로 무한한 상상력을 펼치는 친구의 모습이 대견스럽다. 하지만 감수성에 치우친 나머지 때론 ‘사실을 통한 진실 추구’라는 본분(本分)을 잊기도 하는 것 같아 걱정된다. 결국 고갱이는 마음가짐이다. 초심만 잃지 않는다면 시춘기의 방황도 옹골진 열매를 맺는 자양분으로 승화될 수 있다. 끝으로 모든 시청자와 절친한 벗이 되어 당당히 세상을 바꿔나갈 녀석의 앞날을 그려본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시청자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시청률 뒤집혀 삼순이보다 재밌는 다크가 와 주기만 할양이면  
 나는 커다란 TV를 만들어 들쳐메고는  
 이렇게 외치겠소이다  
 친구야, 노~올자.<sup>3)</sup>

3) 심훈의 시 「그날이 오면」 패러디.